

이유 (사사기 11:29-40)

오늘은 참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는데, 답이 있어야 한다. 이 답을 갖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 운동이 세상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주에서 나온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따로 세워 매일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훈련 받고 치유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복음 가진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노예가 되었다. 언약을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끊기고 평화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 원리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남미 살리겠다고 기도제목을 잡은 것이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듯 복음가진 한 교회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교회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구별하신 남은자이다. 하나님 앞에 남은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받는다. 인생의 증거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이거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가치있는게 하나도 없고 오직 이것 뿐이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만 맞춰서 말하면 이것을 안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볼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응답 주실수 있는데, 그 응답이 딱 한 개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전부 다 되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답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안되는 이유는 사단이고 영적 문제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관아 없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순례자이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된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해야 한다. 그러나 그거 하면서도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결론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인생이고 인간이다. 이 답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한다. 오늘 메시지는 이 답이 안된 사람에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안의 사명 따라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 모두를 우리 인생에 이루신다. 놀라운 일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인생작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응답의 요건이다. 저절로 응답받는 모든 것은 이 때 다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자의 결과이다.

1. 이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참담한 말씀이다. 핵심은 31절인데, 여기 보면 사사 입다가 맹세를 하나 한다. 암몬자손에게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 맹세 때문에 가장 먼저 영접받은 그의 무남독녀 딸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었다. 생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드리겠다고 드린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빼지 않고 성경에 기록했

다. 성경은 좋은 것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쓰고 그 안에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전체적으로 니가 언약을 떠나서 종교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자손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이다.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암몬자손이 쳐들어와 전쟁한 것이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었는데, 그 나라는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나라를 일으킨 것이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있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 망해버렸다. 이유는 이스라엘이지 바벨론이 아니라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11장 1절에 보면 입다의 출생에 대해 나온다. 아버지는 큰 용사지만 입다는 기생에게 낳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자손들이 입다를 나가라고 하였다. 서러웠을 것이다. 입다는. 그래서 독을 품고 집을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입다 주변에는 깡패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대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니까 힘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다를 찾아갔다. 전쟁이 났는데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면 니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맹세를 한 것이다. 불안하니까. 맹세를 한번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딸이 번제로 죽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책에는 역사기록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자체만 기록하신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도 항상 거기 들어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첫째는 우상 숭배였다.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면 완전 까막눈이 되어버린다. 나도 옆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도 안 보았다. 몰랐다. 이 맹세가 바른지 안 바른지 해야 되는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른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언약을 몰랐다. 언약을 모르니 언약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언약이 중심도 아닌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삶은 종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다. 입다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안에 있음을 알았다면 왜 쓸데 없는 약속을 했겠는가? 몰랐던 것이다. 불안하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씀에 거의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2-5절에 보면 인신제사에 대해서 나와있다.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였다. 누가 죽이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 던져서 죽이고 하나님도 백성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알고도 안 죽이면 그 지방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것이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 잊어버린 것이다.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언약이 없으니 이방신 사상에 아주 젖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 이 인신제사는 암몬의 신 몰렉에게 드리는 것이다. 암몬 사람들이 잘한다고 자기 아이들 중에 선택해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암몬과 전쟁하러 가는데 암몬신을 섬기는 형식의 맹세를 하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뒤죽박죽이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다. 그만큼 영적 감각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 딸이 언약을 바로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맹세를 하든말든 나는 안한다고 했으면 그만이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펴놓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 뭐라 하겠는가?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언약 모르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불신자들 속에서도 이런거 상당히 많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다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런데 언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맹세한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주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뭔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이다.

2. 선지자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 이야기이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째 거짓말 한 장면이 20장이다. 그 7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앙했는데, 그는 내 선지자라고 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 입다 시대에는 이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절대 안된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 이 때 만일 입다에게 이 말을 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언약 안에 있지 너의 맹세안에 있는게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너의 언약안에 있다는 것이다. 맹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언약 안에 있지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맹세, 말, 기도 할 필요도 없다. 능력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선을 그어준 사람이 없으니 딸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잘하는 줄 알고. 이 말 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딸이 나왔을 때 그 때라도 안했어도 그게 더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딸이기 때문에. 종이 나올 줄 알았을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도 없고 딸 하나 뿐인데, 그를 번제로 드리고 싶었겠는가?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 종이 아니라 딸이 나온 것이다. 이 때는 인본주의가 필요하다. 그 때는 그게 더 나은 것이다. 그 맹세 한 것 무효입니다. 이러는게 더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서 되지도 않는 생각이 들어와서 복음도 모르는게 맹세는 지킨 것이다. 자기 입에서 말했다고 하나님 앞에 지킨 것이다. 잘하는줄 안다. 복음을 모르니 기준이 없다. 어이없는 인본주의 인간중심 종교인 것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르니 왕을 모르는 것이다. 복음이 왕이고 언약이 왕이어야 한다. 기준이 없으니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쓸데 없는 맹세가 인간 하나를 깨뜨린것인데, 그것도 자기 딸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깨우쳐 줄정도로 정확하게 말할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없었던 것이다. 아들 딸들이 이런 운동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는 인물로 쓴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이거말고 다른 어떤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가

맹세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게 된 것이다. 죽기는 싫었을 것이다. 아버지 맹세한 것 때문에 그건 지켜야 한다? 입다랑 똑같은 것이다. 기준 모르고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지만 언약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못하고 영적 눈이 안 열리는 것이다. 몰렉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한다. 미국에 많이 있을 것이다.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로이다. 종이라 해도 사람 하나를 번제로 하나 드리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쟁은 이길지 질리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큰거 하나 하겠다고 결심 보여준 것일 것이다. 그게 자기 외동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통곡을 한 것이다. 그것이 최고로 지상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문제가 있었다. 자폐도 있었고. 그 큰 누나는 정신과 의사였고 답이 없으니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하였다. 물론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미적미적 하는 사이에 그 아들이 둘째 누나를 강간을 해버린 것이다. 이 둘째 누나는 강간을 당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버렸다. 그러니까 큰 딸을 중심으로 열린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했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이 할머니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결국 이 엄마가 아들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엄마마음을 이해못할 것은 아니다. 메시지는 엄마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기도 죽음을 당한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이다. 쓸데 없는 맹세를 해서 딸을 불에 태워죽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에 눈 떠야 한다. 복음과 언약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러면 응답도 그냥 온다. 너무나 안타깝고 허전하고 쓸쓸한 이야기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바보같은 선택을 했다. 복음을 모르니 무엇이 맞는지 기준이 없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복음과 약속의 피가 기준되어야 하는데, 잘못 잡고 산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 일반 국민들은 제쳐두고라도 미국 성도들은 어떻게? 입다같은 사람, 그 딸같은 사람은 없을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유도 같고 문제도 같고 답도 같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입다와 같은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미국과 남미에 증인되게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제자가 선지자인 것이다.

옛날에 현지인들과 성경공부할 때 보면 선지자이야기 자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잘 안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 옆집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사업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걱정하고 말했다. 그런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최고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거기 답을 내라고 하였다.

우리는 선지자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선지자이다. 언약 가지고 미국 남미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세계, 다음세대, 렘넌트. 정확한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줄 믿는다.